

‘발암물질 검출’ 여수 국가산단 대체녹지 토양오염 조사

1구간서 비소·불소 기준치 초과 검출...6개 시행사에 강력한 행정조치

여수 국가산업단지 대체 녹지 조성지 1구간 토층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 집중호우 시 주삼동 중방천 상류에서 적갈색 물이 발견됐다. 적갈색 물은 이미 조성된 국가산단 대체 녹지대 1구간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시는 전문기관에 대해 녹지대의 토양 8개소와 수질 5개소에 대해 오염도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1구간 심토층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비소가 24.34~108.99mg/l 검출됐다는 결과를 받았다. 불소도 670~1105mg/l 검출됐다. 공원 부지의 법적 기준치인 비소 25mg/l, 불소 400mg/l 이하를 초과한 수치다. 여수시는 대체 녹지를 조성한 6개 시행사에 토양 오염도 기준치 초과에 대한 원인 분석과 토양 정밀

조사를 하도록 하고 토양 정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 수질 조사에서 수소이온농도(pH)가 낮게 나오에 따라 집수 관정을 설치해 적갈색 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대체 녹지 조성 사업은 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양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산단대체녹지조성지 1구간’은 국가산단 내 6개 회사가 국가산단 녹지해제 및 공장용지 조성에 따른 지가차액으로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조성해 2022년에 여수시에 기부채납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여수국가산단 대체녹지 조성지 1구간 전경.



담배연기 사라진 섬진강기차마을

곡성군, LED 금연 입간판 설치

곡성군은 지역 대표 관광지인 섬진강기차마을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장미공원에 국한된 금연 구역을 지난 3월부터 섬진강기차마을 전체로 확대 지정했다. 최근에는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태양광 LED(발광 다이오드) 조명을 단 입간판 형태의 금연 구역 안내표지판(사진)을 섬진강기차마을 안에 설치했다. 기존에 붙어있던 오래된 노면용 금연표지판은 모두 제거했다. 곡성군은 추석 전까지 금연홍보 목재 입간판 10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곡성지역 11개 읍면에는 주민 수요조사를 거쳐 금연 안내가 필요한 곳에 노면용 금연표지판 100개를 부착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군은 지속해서 금연 구역 점검과 흡연자 계도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흡연자들이 쉽게 금연하는 방안을 찾고 금연 환경조성에 노력하면서 지역사회에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순천, 일+휴가 ‘위케이션’ 최적지”

〈Work+Vacation〉

행안부 ‘고향올래 사업’ 대상 선정 특별교부세 5억원 등 10억 확보 ‘위케이션’ 거점시설 구축하고 순천형 위케이션 사업 기획·운영

순천시가 일과 휴가를 함께 보내는 ‘위케이션’(Work+Vacation) 최적지로 꼽혔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올래 사업’의 위케이션 분야 대상지에 순천 등지를 최종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고향올래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체류형 생활인구를 확보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이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 감소를 해결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순천시는 건강과 휴양을 동시에 즐기는 ‘웰니스’(웰빙+피트니스) 관광을 주력 산업으로 키워 왔다. 순천은 2023순천국제제정원박람회 개최로 주목받고 있는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등 자연자원을 풍부하게 지니고 있다. 생태관광 자원과 도심에 있는 교통, 편의시설이 잘 갖춰졌다. 순천 관광 활성화는 인근 남해안 벨트에 해당하는 다른 지역에게까지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 순천시는 이번 정부 사업 대상지 선정으로 인해 특별교부세 5억원 등 사업비 총 10억원을 확보했



순천시가 일과 휴가를 함께 즐기는 ‘위케이션’ 최적지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 순천만국제제정원박람회장에서 진행되는 숙박형 체험 ‘가든스테이’.

다. 앞으로 ‘위케이션’ 거점시설을 구축하고, 순천형 지역특화 위케이션 사업을 기획·운영할 계획이다. 또 순천으로 많은 직장인이 위케이션 휴가를 올 수 있도록 수도권 기업 등에 투자 유치를 건의할

방침이다. 위케이션 참가자들은 지역화폐와 연계해 숙박비·교통비 등을 할인 받고 관광지 이용 혜택을 받는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의 우수한 지역자원과 박

람회 파급효과 등을 활용해 전국 제1의 위케이션 선도지역으로서 이정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

순천시, 23일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순천시가 ‘204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 공청회’를 오는 23일 오후 3시 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연다. 도시기본계획은 시·군 단위에서 수립하는 법정 최상위계획이다. 건축정책·도시개발·도시재생·도시경관 등 도시와 관련된 계획을 포괄하고 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204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은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을 완성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마련된다. 전문가와 공무원 중심의 도시계획 수립 방식을 벗어난 것이 핵심이다. 도시계획전문가의 진행과 함께 시민계획단·읍면동 시민설명회 등 8가지 의견 청취 방식을 도입했다. 14차례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경로로 시민 의견을 들었다. 순천시는 도시기본계획을 대내외 여건변화와 정책 방향을 고려한 8대 핵심목표 중심의 계획으로 구상했다. 관련 부서 실무자 협의 회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계획 실현성을 강화했다. 204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23일까지 순천시 도시계획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 공청회 당일에도 의견을 낼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204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 공청회는 미래도시로 나아가야 할 일류 순천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첫 번째 법정 행정절차”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이 전남도 지정 ‘명품 지하수’에 꼽혔다. 제암산자연휴양림 전경. <보성군 제공>

보성 2곳, 전남도 ‘명품 지하수’ 선정

제암산자연휴양림·전남권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선정하는 ‘명품 지하수’에 보성 2곳이 선정됐다. ‘2022 명품 지하수’에 선정된 장소는 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과 전남권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이다. 제암산자연휴양림은 160ha 규모의 숲속에서 캠핑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 활동 등 모험시설을 즐길 수 있으며, 맑은 공기와 깨끗한 숲, 계곡이 잘 보존돼 있다. 연중 30만여 명의 휴양객이 즐겨 찾는 대한민국 대표 휴양지로, 산림 내에 56개의 숙박시설과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무장애 데크(갑판)길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2018 한국관광의 별’, ‘5·6월에 가볼 만한 곳 선정’, ‘8월 걷기 좋은 길’, ‘2019 코리아유니크베뉴 30선’, ‘2023 전남도 유니크베뉴’ 등에 선정됐다.

휴양림 안에 있는 전남권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는 인간과 자연이 교감할 수 있는 생태 공간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3회 연속 ‘추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돼 외부 교육기관에서 연수가 줄을 잇고 있다. 한편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남지역 지질학적 특성을 고려해 개발한 지표(J-INDEX)를 적용해 이번 조사를 벌여 ‘명품 지하수 50선’을 뽑았다. 명품 지하수는 미네랄과 기능성 성분 함유량 점수 등이 반영됐다. 보성군 관계자는 “명품 지하수 유지 관리를 위해 지속해서 수질 검사를 시행해 휴양객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맛있고 건강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분청에서 즐기는 트로트 향연

고흥분청문화박물관, 26일 분청문화의 날 행사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은 군민과 함께하는 ‘8월 분청문화의 날 행사’를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분청에서 즐기는 트로트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박물관을 무료 관람하고 트로트 공연, 수제 제습기·실내용기 만들기, 풍선아트 체험, 분청사기 짚짜 할인판매, 관람객 참여 이벤트 등을 즐길 수 있다. 1층 행사장에서는 ‘별이와 세일러보이’, ‘더블루 이어즈’, ‘진이랑’ 등이 출연하는 트로트 공연이 펼쳐진다.

관객들은 소셜미디어(SNS) 박물관 홍보 행사나 즉석 노래자랑에 참여해 분청사기 원형 접시 등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행사장에서는 고흥 대표 과일인 유자, 석류로 만든 음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분청문화의 날 행사는 지난 5월부터 매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누적 참가 인원은 7000명을 넘겼다. 오는 9월과 10월 분청문화의 날은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고흥분청문화박물관에서 열린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광양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 지원

저소득층 등 2천세대에 1대당 10만~60만원

광양시가 총 2000세대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한다. 광양시는 올해 사업비 2억1500만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가정 30세대를 포함한 총 2000세대에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친환경(저녹스) 보일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인증을 받은 보일러이다. 초미세먼지 생성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약 80%까지 줄일 수 있다. 에너지 효율이 높아 난방비를 절약하는 데도 보탬이 된다. 광양시는 가구당 연간 최고 13만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은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은 광양시민이면서, 올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한 주택 소유주·세입자이다. 보일러 1대당 10만원을 지원하며, 저소득층 가정이라면 60만원을 지원한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 신청 서류는 보일러 판매 대리점이 갖추고 있다. 신청 서류는 광양시 환경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내면 된다. 광양시는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으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4386세대에 7억8500만원을 지원했다. 환경진 광양시 환경과장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줄이는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 난방비를 절감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